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0호 [루계 제24978호] 주제 104(2015)년 7월 19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모두다 선거에 참가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오늘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다.

백두산기슭으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선거장들이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우리의 혁명주권 반석같이 다지여 인민의 내 나라 길이 빛내자리는 선거의 노래»가 온 나라 강에 울려퍼져 고있으며 어디나 선거자들의 양양한 정치적열의가 차넘치고 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대의원선거의 날은 자기들의 자주적존본과 행복, 후대들의 밝은 웃음을 지키고 꽂고자하는 삶의 허전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진행되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새로운 혁신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 주민기관들을 더욱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험통같이 통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 공화국정권의 공고성과 불폐성을 다시 한번 힘있게 파시하려는 것이 우리 선거자들의 불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였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 길이며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여기에 인민중심의 자주권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한 사람같이 참가하여 친성투표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혁명적풍토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이다.

우리 인민은 장구한 기간 공화국정권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존엄있고 행복복한 생활을 누려온 실

지체함을 통하여 그 귀중함을 심장 깊이 새기고 있다.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가 얼마나 강렬하고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인민정권의 책임 없는 강화발전에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엄의 빛나는 승리와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얹혀져 있다.

우리 인민이 뿌리내린 신념이다. 전제 인민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광복국민민족

궁지를 암고 오늘 진행되는 대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할 때마다

건설하고 지켜낸 우리 공화국정권의

불폐의 위력이 더 힘있게 떨쳐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는 백두산철세위인들을

주체적인 정권건설사업과 업적을

결과로써 당과 함께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성과 일심

단결의 기상을 표시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도밀에 세기와 세기로 이어 송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수놓아왔다.

일찌기 할길의 불길속에서 정권건설의 터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들

의 길을 헤치시며 인민정권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해 오시였다.

위대한 장군께서 사회주의의 주인으로

세워온 정부보장을 확고화하고

우리 인민의 새로운 주체 100

년대 진군은 세계를 경탄시켰다.

오늘의 선거는 고마운 삶의 품을

마련하여 주신 백두산철세위인들에게

한 다행없는 감사의 분출로, 위대한

수령님들과 영원한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일심 단결의 확고부동성에 대한

일대 파시로 될 것이다.

오늘의 선거는 각각 지방주전기판

들을 더욱 풀터히 다지고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정권은 당의 보선파

정책의 집행자이며 당의 구상파의

도가 어떤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게 각각 주민기관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 당은 비상히 높은 목표

를 내세우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

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강성국가

건설의 전역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깔바탕정신으로 온갖 시련

과 난관을 과감히 짓부시며 새기를

주름잡는 대비 약적혁신을 일으켜나

가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현실은 혁명파 건설의 위력한

정치적부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민정권의 강

화발전을 떠나서 사회주의수호와

나리의 부강번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전국의 선거구, 분구들에 등록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은 우

리당의 사상과 명도를 높이 발달

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렬한 애국자, 인민의 창된 충북들

이다. 대중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지방주전

기관들이 꾸려질 때 우리 공화국

정권이 더욱 광고해지고 그 기능과

역할에 새로운 경로를 열어날수

있다. 현제에는 원수님을 따르고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의 보루이다. 우

리 인민에게는 흑백을 전도하는 적

들의 퀘변이 절대로 통할수 없다.

우리는 선거를 계기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공

화국정권은 끄떡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공화국정권의 품

속에서 창된 삶과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궁지와 자부심

이 선거장들마다에 꽂 치치치치 하

여야 한다. 모든 선거자들이 바치는

하나하나의 선거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복지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

과 적대세력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여

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공화국정권

의 최대의 사명이다. 공화국정권은

창건된 첫날부터 갈라진 조국을 통일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왔다.

모든 공민들이 오늘의 선거를 통하여

공화국정권의 불폐성을 힘있게

파시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제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어야

한다.

모두다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여 공화국정권을 반석

같이 다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범적인 강연강사를 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강연강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기

여인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에게 감사

를 보내시였다.

강원도립업관리국 직행위원장 한영민

은 지난 27년간 강연강사를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연을 참신

하게 진행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

들을 위해 한

경찰서, 김정일·김정일주의로

온전히 무장시키고 당정책옹위전에

적극 불려온

경찰서, 김정일주의로

온전히 무장시키고 당정책옹위전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업적 인민은 못 잊습니다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사에 새겨진 령도의 자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 왔다.

온 나라의 일터와 마을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홍성이고 있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은 뜻깊은 이번 선거에서 충정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칠 일념에 불라고 있다.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신념의 맹세를 다지며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온 조국의 만년체부를 일떠세우고 있는 백두산신군청년발전소의 청년 풍랑대원들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양시 사동구역 창천남새건물현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비롯한 이 나라 인민의 삼장마다에 애국의 열망이 차넘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인민적인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게 될 지방주권기 판대의원선거!

되새겨볼수록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 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며 근로인민을 정권의 찬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에게 한 고마움이 가슴벅차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끌끌이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공화국의 무한한 힘의 근본원천이며 공화국정권은 이 위대한 일심 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승승의 력사를 빛내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근로인민의 력임을 대표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서 장구하고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행위를 통해 인민의 정권입니다. …

뜻깊은 이 시각 우리 혁명주권의 부끄러운 면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나마로 달리는 인민의 추억은 참으로 끊겼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주체사상의 거치며 주권문제로 보이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세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을 이끌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카를회의 거울명월구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세시하시고 두만강연안의 유래로써 주체적인 유격근거지에 펼쳐진 인민의 새세상을 세워질 새 사회의 원형으로 되었다.

해방후 유격근거지에서의 정권건설경험에 토대 하여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복속립시민인원회를 수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7(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위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하시고 전체 조선인민의 력임을 대표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그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새 삶이 꽂혀날은 비롯하여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사업에 그들이 적극 일弛나서도록 걸음걸음을 살펴주시던 우리 수령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세시하신 새 형의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인민의 혁명한 지지와 친동을 받았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야하유격구의 사수령미를 나가시여 인민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었으며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사업에 그들이 적극 일弛나서도록 걸음걸음을 살펴주시던 우리 수령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세시하신 새 형의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인민의 혁명한 지지와 친동을 받았다.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력임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응호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정권입니다. …

사수령에서의 첫 인민혁명정부의 수령, 인민정권의 주권적지도는 본질에

그것은 근로인민의 정권건설역사에서 새형의 혁명정권의 탄생이었으며 주체사상의 거치며 주권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었다.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에 펼쳐

진 인민의 새세상을 세워질 새 사회의 원형으로 되었다.

해방후 유격근거지에서의 정권건설경험에 토대 하여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복속립시민인원회를 수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7(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위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하시고 전체 조선인민의 력임을 대표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그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새 삶이 꽂혀날은 비롯하여 인민혁명정부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명철하게 밝히시는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 퍼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고 시정연설을 받아안게 될것으로 생각하였던 회의참가자들의 감각은 참으로 깊었다.

불비풀이던 거울명월구회의 나날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현 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이 임무와 역할』,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 등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력임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응호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정권입니다. …

사수령에서의 첫 인민혁명정부의 수령, 인민정권의 주권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파 수령의 평등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며 주권기판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보호자로서의 주선자에게 험하게 불려일으키시던

향기의 네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숨어있다.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회

의 때의 이야기가 끄러운 경계를 불러온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의에

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최고인민

회의 제 9기 제 1차회의 시정연설을

참가자들이 목록으로 청취하도록 하

시였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파업,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전진한 인민정권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증명서를 구현함에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인민정권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명철하게 밝히시는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 퍼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고 시정연설을 받아안게 될것으로 생각하였던 회의참가자들의 감각은 참으로 깊었다.

회의장에 올려펴진 우리 수령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아버이수령님의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끝 없이 끌어다니는 회의장을

위대한 장군님의 충정의 세계를 전

하여주는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를 인민은 오늘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어찌 그뿐이랴.

지방주권기판 대의원선거장을 찾으시여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친성의 한표를 치우치고 그들에 담화문을

나누시며 인민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고무해주시던 차례로 어버이

의 손길은 얼마나 온후로운 것인가!

인민정권의 인민대중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고장난 품모를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다.』

해방된 조국땅에 기쁨과 행복이 차넘치던 어느 해 8월이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약수터를 찾으셨었다.

당시 이곳 농민들은 력사적인 조국해방기념일을 맞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는 이 약수터에 남을 퍼는 바늘과 물을 만들어세우고

짚을 짠다. 그들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정권입니다. …

그들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것은 무엇인가.

자주적권리와 리익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보호자로서의 주선자에게 험하게 불려일으키시던

향기의 네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숨어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나에게 이어 가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 우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정권에 대한 인민의 신뢰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나에게 험하게 불려일으키시던

향기의 네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숨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

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최고인민

회의 제 9기 제 1차회의 시정연설을

참가자들이 목록으로 청취하도록 하

시였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파업,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전진한 인민정권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증명서를 구현함에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인민정권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명철하게 밝히시는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 퍼져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파

수령의 평등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며 주권기판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보호자로서의

주선자에게 험하게 불려일으키시던

향기의 네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숨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

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최고인민

회의 제 9기 제 1차회의 시정연설을

참가자들이 목록으로 청취하도록 하

시였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파업,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전진한 인민정권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증명서를 구현함에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인민정권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명철하게 밝히시는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 퍼져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파

수령의 평등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며 주권기판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보호자로서의

주선자에게 험하게 불려일으키시던

향기의 네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숨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

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최고인민

회의 제 9기 제 1차회의 시정연설을

참가자들이 목록으로 청취하도록 하

시였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파업,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전진한 인민정권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p

일심단결된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떨쳐갈 일념안고 선거장에 들어서자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지키던 그 정신으로

랑립립 산사업소 오만동방

부침목생산작업소의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사랑한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여온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있다.

이곳 로동계급의 대부분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10여년전 린산사업소로 헌원하여 제대 군인들이 있다.

랑립립 산풀기의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유정한 물소리만이 울리면 오만동의 외진 산촌에 삶의 보금자리를 정하고 침목생산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제대 군인들,

당이 말려준 소초는 병사의 전투자지로 여기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지키던 그 분대로 부탁드리는 침목생산을 맞받아 끊고해치며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물속에 빛날수록 빛날수록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위한 준비작업이 찬한 진행되던 지난 6월 어느날이었다.

산종으로 뿐만 도로를 새로 건설하면 2소대의 앞길에 뜻하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었다.

적지 않은 구간에서 암반이

랑립립 산사업소

나왔던 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 구간을 데온다면 수십미터 되는 길을 새로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2소대 장 전총부동무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소대원들이 저져마다 합마를 들고 나섰다.

«소대 장동지, 지금은 나라가 다가오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고자 부금부금 끓고있지 않습니까.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분대로 단숨에 암반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는 소대원들을 바라보는 전총부동무의 마음은 드러워졌다.

면들 그들과 함께 이곳으로 달려와 통나무생산전투를 힘 있게 벌려던 지난날이 돌아왔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9월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랑립립으로 털려온 제대 군인들은 자기들의 정신장속일기를 종이 아니파 펴는 가슴마다에 이렇게 새겨넣었다.

우리는 선군시대의 제대병사들이다. 위대한 장군님 품속에서 길이 번영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것보다 더 행복, 더 보람찬 영예가 어디 있으랴.

온통 원시림으로 뒤덮인 오만동의 외진 산풀, 이곳이 그들이

오만동방부침복생산작업소로동계급

나왔던 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 구간을 데온다면 수십미터 되는 길을 새로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2소대 장 전총부동무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소대원들이 저져마다 합마를 들고 나섰다.

«소대 장동지, 지금은 나라가 다가오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고자 부금부금 끓고있지 않습니까.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분대로 단숨에 암반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는 소대원들을 바라보는 전총부동무의 마음은 드러워졌다.

면들 그들과 함께 이곳으로 달려와 통나무생산전투를 힘 있게 벌려던 지난날이 돌아왔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9월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랑립립으로 털려온 제대 군인들은 자기들의 정신장속일기를 종이 아니파 펴는 가슴마다에 이렇게 새겨넣었다.

우리는 선군시대의 제대병사들이다. 위대한 장군님 품속에서 길이 번영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것보다 더 행복, 더 보람찬 영예가 어디 있으랴.

온통 원시림으로 뒤덮인 오만동의 외진 산풀, 이곳이 그들이

처럼 누가 보건밀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무거운 짐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나가려는 뜨거운 국의 마음이 소중히 비껴온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작업소의 로동계급은 자체로 양묘장도 꾸리고 해마다 많은 나무모들 키워 산에 심고있는 것이다.

비록 외진 산중에서 일하고있지만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의 숨결과 백성을 언제나 마음속깊이 새겨안고 그들이 걷는 현신의 걸은 랑립립 산풀기의 깊은 계곡마다에 지워지지 않는 값높은 삶의 자족으로 아름답게 새겨지고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에서 힘찬 투쟁을 멀리고있던 어느날 작업소의 로동자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활강히 풍진하고있다.

언제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곳 작업소로 새로 들어온 한 청년이 작업소의 침복을 입어온 후원회원으로 헌신의 걸은 풀렸다. 작업소의 로동자들은 살피며 유품을 찾고 있다.

그나마 그들은 성파에 만족을 풀었다. 작업소의 로동자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활강히 풍진하고있다.

언제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곳 작업소로 새로 들어온 한 청년이 작업소의 침복을 입어온 후원회원으로 헌신의 걸은 풀렸다. 작업소의 로동자들은 살피며 유품을 찾고 있다.

그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힘이 들지. 그러나 우리가 생활한 침복으로 철길이 높이고 그 철길을 따라 사회주의 건설장들마다에서 유통망을 넓여 풍랑을 실은 차들이 줄지어 달린다고 생각해보게. 그러면 몸은 비록 외진 산풀에 있어도 조국의 숨결을 체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구간에서 빌금진 구호나우들의 글뿐이다.

그 글마다에서 조국의 혜방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의 네 맘을 새겨안으며 그들처럼 투쟁할 열의로 심장을 불우는 작업소로 동체급이다.

하기에 작업소장은 안경철동무가 우리 손으로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자고 호흡하고 방대한 건설계획을 내놓았을 때 로동자들 속에는 누구 하나 힘들다고 주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이 생산하는 한정한정의 침복마다에는 바로 이렇듯 철길을 말없이 떠받들고있는 침복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공민은 누구나 다 달이 요구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장 열에로운것으로 여기고 지혜와 정력을 다해 성실히 하여 하여야 한다.»

지난 6월 어느날이었다. 세멘트증산을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버린 합동세멘트공장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누구나 격동된 심정을 표시해온다.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한 자랑을 안고 충정의 한표를 내세우고 활강히 풍진하고있다.

그들이 일과 함께 이곳으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합동세멘트공장 일군들과

작업반장 김성기 등무가 작업반원들과 함께 무엇인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 띄었다.

알고보니 공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새롭게 제작설비한 판매바이의 막동을 보상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짜내고있었다.

지배인이 하루계획도 넘쳐 했는데 그들더러 어서 집으로 가리고 권고하여 소성공 희창일동무는 담당한 어조로 말하였다.

«저를 도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준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생각할 때마다 일을 더 많아 하지 않고는 차지감으로 가슴이 아파되었습니다. 그려느라니 저 한줄한줄의 세멘트가 무심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한 자랑을 안고 충정의 한표를 내세우고 활강히 풍진하고있다.

그들이 일과 함께 이곳으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끌어세우고 로동자들의 열의로 풀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벌어지면 어느날 감속기가 뜯밖의 기운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온 초급당일군인 박철동무는 일동

전화의 근위부대정신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리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스러운 군가명곡 《근위부대자랑가》에 대하여

주제 39(1950)년 7월 19일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전군사에 근위정호가 제정된 날로 아로새겨져 있다.

뜻깊은 그날로부터 65년이 되는 올해의 2월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 꾸며진 근위부대관을 찾으신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밤이 대결전에서 헌전현승을 이룩하자면 근위부대들의 승리의 전통을 적극 따라배우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을 생명으로 바쳐 싸운 근위부대영웅 전사들의 사상정신적풍물로 적극 본발도록 하여야 한다고 드겁게 강조하였다.

우리 당이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근위부대들의 위훈을 왜 그토록 치하하고 있으며 오늘 새 세대 군인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근위부대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노래 《근위부대자랑가》에 담겨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의 군대, 달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금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흥망운을 위하여 대원수원수님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불러받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세계 각 어느 나라에도 이런 노래는 없다. 《근위부대자랑가》는 오직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한 우리 영웅조선인에게 기리를 향유하는 노래이며 고귀한 승리의 전통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줄기정성, 굳건히 계승 해 가고 있는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음악보를 고예만 있을 수 있는 군가명곡이다.

노래 《근위부대자랑가》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전현령이 근위부대들과 그들이 세운 전설적인 군공들에 대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사의 기본흐름을 훌륭히 재현하고 일만화하였다는데만 있지 않다. 이 노래는 원래 한 전승의 자랑스러운 혁력을 오늘의 시대정신, 시대감정과 완벽하게 결합시킴으로써 단순한 군기와 위용이며 원우격렬의 격정장을 누비던 용감한 근위병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근위부대,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당파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대오앞에 근위군기와 위용이며 원우격렬의 격정장을 누비던 용감한 근위병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명곡의 1절에 오른 《무쇠침마로 소문난 근위 105명크사단》과 《세상에 명성열린 용감한 싸움꾼들 근위 4보병사단》은 적의 아성인 서율을 전개해 3일만에 해방하고 미제의 《상승사단》을 완전히 폐멸시킨 대전해방작전에서 혁혁한 위훈을 떨친 부대들이다.

노래의 2절에 반영된 바다와 하늘의 근위부대들이 벌린 전투 역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전천들이다.

《바다의 선과 유파들 미제의 침략선 중순양함을 통쾌히 수장한 해군의 영용한 근위 2어뢰정대》는 무게가 17톤에 안되는 어뢰정 4척으로 합선집단을 거느린 1만 7, 000급의 침략선 중순양함 《불티모》호를 격침시킨 주문진해전의 주인공들이며 《하늘의 요새》처럼 날아든 미제의 공중비행을 가을의 험악 만든 공군의 습기로 운 근위 추격기연대가 미제의 《공중우주세》를 박살낸 조선의 불을 함께들이다.

노래 《근위부대자랑가》의 3절에 오른 멀적의 부대, 진격의 화살인 《근위 3보병사단》과 남강도 미제를 멀망의 합성물에 처넣은 1 2 1 1 고지방위자들이 《원 2보병사단》은 막대한 살인장과 범역들을 끌어밀며 전쟁형세를 역전시켜 보려도 침략의 수혜들에게 불굴의 정신력은 원사탄보다 더 위력하다는것을 파시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다.

우리 당의 주체문화에 대한 인간의 성격과 생활을 전형화하면 시대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고 밝혀주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배출된 근위부대들이 애말로 1 9 5 0년대 조국결사수호정신의 가장 뚜렷한 체현자들이며 그들이 거둔 혁학한 전파들이 있다.

전승의 큼직큼직한 봉우리들을 이루고 있는 근위부대들의 전투행로와 공훈을 예술적으로 집약화하고 근위부대의 날다리를 떠나, 근위병들고유의 자신심넘친 성격과 배짱을

도 헤치 않은데 전쟁 3년간 하늘과 땅, 바다에서 벌어진 유명한 전투들과 그 주인공들의 군상을 한편의 노래에 담아 전쟁시의 기본흐름과 시대의 본질을 담은 기념비적 대작과 같을 명작으로 될수 있을 것이다.

내 대작을 걸짓는것은 규모가 아니라 내용이라는 주제적문에 따른 정당성과 생활력을 명과 《근위부대자랑가》는 이렇게 실증하여주었다.

노래 《근위부대자랑가》의 시대적 가치와 인식 교양적의의는 6 0여년전의 혁사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재현하고 일반화하였다는데만 있지 않다. 이 노래는 원래 한 전승의 자랑스러운 혁력을 오늘의 시대정신, 시대감정과 완벽하게 결합시킴으로써 단순한 군기와 위용이며 원우격렬의 격정장을 누비던 용감한 근위병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명곡의 1절에 오른 《무쇠침마로 소문난 근위 105명크사단》과 《세상에 명성열린 용감한 싸움꾼들 근위 4보병사단》은 적의 아성인 서율을 전개해 3일만에 해방하고 미제의 《상승사단》을 완전히 폐멸시킨 대전해방작전에서 혁혁한 위훈을 떨친 부대들이다.

노래는 원래는 군인들만이 좋아하는 명곡이 아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이 멋쟁이군가를 사랑하며 즐겨 부르고 있다.

명곡의 가사와 선율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립과 예술적제례는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 더욱 고조된다. 방사포의 일제 사격같은 성량은 고대로 노도와 같이 나아가는 근위부대들의 사기충천한 발구들로

를 들는것만 같고 미제의 침례상을 동속지이면서 풍자적으로 적리라하게 밭가들을 때면 미제의 성조기를 걸레찌처럼 밟고 거울에 달려온 군인들의 목소리로, 시대의 부모으로 군장을 두드리며 울려오고 있다.

비록 총포성은 울리지 않지만 강성국가건

승전의 기운을 전하는 군인들의 힘찬 군상을 보는것처럼 가슴후련해진다.

명곡의 구슬들을 죽 훠놓은것처럼 하늘과 땅, 바다에서 영웅하게 싸운 근위병들의 정신세계를 명명백하게 밝혀주는 명구절이다.

동무는 전화의 근위병들처럼 위대한 수령들과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奉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래 《근위부대자랑가》의 사상적해이며 청년군민의 심장에 퍼방울처럼 흘러드는 전화의 근위병들의 고귀한 냄새이다.

이 노래는 군인들은 결사奉행하는 가사에 안

도 안되는 그 걸지 않은 나날에 현실로 증명되었다. 그 나날에 우리 얼마나 많은 《근위부대자랑가》의 새 주인공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위훈에 탄복하게 되었던가.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죽어주면서 1 7 0 1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여주신 명포수를 펼쳐놓았던 1 2 0 5년의 첫 명종포성을

울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